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대로 놓고 가는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집이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 진짜 열반인 것이지 그냥 집이 없어지고 죽는 것은 열반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구경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즉 나를 죽여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둘이 아니게 더불어 죽어서 또 둘 아닌 도리를 알고, 또 더불어 같이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인지라 무슨 소용이 있겠소마는 여러분과 같이 질서를 지키면서 배우고 나가려면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열반이지 죽으면 열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서 못한 거를 죽어서 어떻게 하겠소? 더하고 덜함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간에 살면서 속세 따로 부처님 법당 따로 생각해서 둘로 보신다면 항상 선은 끊어질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둘 아닌 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어서 내 아픔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평등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뼈무더기에다가 절을 해 보인 것도 역시 그러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늙었습디다. 그냥 늙었어요. 그러니 어찌 부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습이 없다고 해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지 지금은 안 계시다고 하지 마세요.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에요. 부처님은 지금도 계시고 이렇게 만물만생으로 나투면서 설해 주시면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러분이 맛있게 잡숫고 안 잡숫는 거야 어찌해 볼 수 없는 거니까요. 허허, 그거야 어쩔 수가 없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오늘 큰스님 법문 중에 다 들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을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미 질문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참 가슴 벅차게 기쁩니다.

저는 큰스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면서, 또 책과 테이프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큰스님께서 중생 제도의 방편으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주인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스님께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믿고 맡겨라." 하고 가르치시는 도리는 방편설인지 아니면 주인공이 실체로서 정말 있어서 믿고 맡겨야 한다고 하시는지 저의 주변에서 언쟁이 많았습니다. 오늘 법문에 충분히 있지만 다시 이것을 정립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짧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말하고 행동하고, 자동적으로 나오셨죠. 그리고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죠? 사람도 자기 운전수가 바로 몸뚱이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운전수와 차가 둘이 아니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운전수가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차를 끌고 다니는 바로 주인이죠. 그러니까 말도 하게 하고 이리로 가게 하고 저리로 가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즐겁게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섣불리 어디서 신이 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실상 자체, 돌아가는 자체, 자기를 스스로 끌고 다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주인공인 것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화해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름마저도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보십시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신심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윤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께서는 백 년 전에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으며 오늘 법문하시고 계시는 스님은 백 년 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큰스님 하하하, 백 년 전이든 백 년 후든, 지금조차도 없어요! 하하하. 그런데 지금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살려니까 질서를 지키고 백 년 전이니 백 년 후니 하지, 이거는 백 년도 없고 천 년도 없고, 후도 없고 전도 없어요. 시발점도 종점도 없어요!

질문자3(남)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행하여 가는 중에 저의 내면을 관찰해 보면 수많은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 있을 때 이런 의식들이 육신이 죽고 난 후에는 업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떤 것이며 불성, 참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생각을 내면 모두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소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소, 즉 생각을 해내는 그 자체가 영혼입니다. 맷돌로 비유한다면 맷돌 추는 바로 불성이요, 즉 맷돌이 돌아가게 하는 그 자체는 그냥 힘을 내 주기나 했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영혼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불성이 다르지 않고 바로 육신까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삼라만상의 일체가 다 같이 혼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보시지 마세요.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질문자4(남)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이천오백 년이 지난 지금을 흔히 저희들은 말법시대니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저희 중생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멀고 또 사법과 사교가 활개 치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정법 만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이 정법을 만났고 또 배우고 수행하여 참자유인이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법을 모르고 사법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분들에게 스님께서는 어떻게 포교하고 계시며, 그리고 스님을 대신해서 이 법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불교 교육대학 포교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스님 이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이구,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서 날짜를 물어보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탈이 생긴다.'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살아요. 그 한 예만 봐도 살아나가는 게 모두 그렇게 관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나가는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권리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그 권리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 와서 그냥 머리에 배었죠.

지금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틀리지 않고 배우는 사람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그대로라는 걸 백지 한 장 사이인데도 모르고 있지만 그것만 알아채면 이 세상을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그렇게 간단하죠.

그런데 생각들에 젖어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 줘도 "아이고, 그렇게 다 놓으라니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러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 내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걸어올 때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건 짊어지고 다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붙들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온통 붙들고 만날 걸리는 거죠. 그게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고 나오지 못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러 주세요.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게 뭣고?' 하지 말고 "네가 너를 끌고 다니니까 그대로 거기다 맡기고 그대로 지켜봐라. 못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굴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게 놓고 거기에다 맡겨라. 주인의 그 구멍은 한 구멍밖엔 없다." 하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면서 당신을 끌고 다니는 자체를 주인 삼아서 꼭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깨치게 되어 고삐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듯이 자기 주인이라는 이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서로 100% 작용할 줄 알아야 에너지를 바로 자기 자신들이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4(남) 알겠습니다.

질문자5(남) 스님께서 불이(不二)의 법문을 해 주시면서 둘로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짐작은 갑니다만 평소에 의심나는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계 가운데 불살생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 음식을 먹으면서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럽니다. 육식 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그 불살생계에 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죠. "손님들이 와서 닭 30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30마리를 잡아서 서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하고, 만약에 하지 말자고 우긴다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 테니 스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그거를 살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백지장 하나를 넘지 못해서 모르니 살생이 될 것이고, 백지장을 뚫은 사람은 그것이 살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생각을 이렇게 해라. 닭의 살은 네 살이고, 닭의 생명도 네 생명이고, 닭의 마음을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 닭의 살은 약으로 될 것이고 닭 30마리가 그냥 홀랑 네가 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 30개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30개를 꺼내도 줄지 않는 도리니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그냥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와서 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꿈을 꾸니까 닭발이 전부 한데 묶여서 천상으로 올라가요." 자기와 그 닭들이 둘이 아니게끔 그냥 자기 몸뚱이로 들어오더니만 자기가 천상으로 올라가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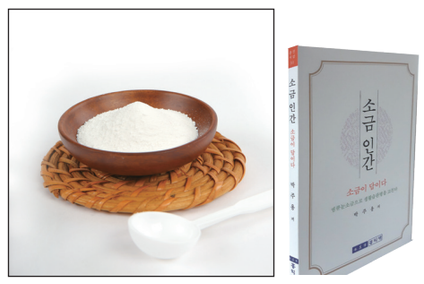
그건 왜? 그 도리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소고기 한 점이 걸리는 것이 오백 년, 천 년 만에 한 번 인연이 될까 말까 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백 년도 일 초요 일 초도 오백 년이지, 오백 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 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가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봐도 그 소 모두를 내 마음 안에 넣으면 내가 되고 내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소가 되고, 소가 돼서 소 무명을 벗기면 그대로 인도환생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사람들은 연쇄적으로 하(下)의 동물을 먹고 그 하의 무명을 벗기고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생한다고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야 어찌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며 그 뜻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을 한 바도 없고 안 한 바도 없는 그 가운데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아주 무주상 보시죠. 하하하….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1월 1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너 나가 따로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고
모두가 찰나에 화해서 돌아가니
몰락 놓게 되면 그 도리를 몰락 얻으리라.
버릴 게 없느니라.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